

한미FTA 국회비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 당선인은 회동에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정말 체결할 줄 몰랐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미국시장을 먼저 겨냥했다는 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높이 평했다. 여기에 더해 공동연구 단계를 진행중인 중국과의 FTA도 새 정부 출범 후 검토될 것으로 보여,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업계의 고충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편집자주-

이 당선인과 노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처리여부를 불투명하지만 그렇다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관망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10일 워싱턴 월라드호텔에서 열린 미주 한인회와 한국경제연구회(KEI) 창립 2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쇠고기는 안전하다”면서 “의회 지도자들도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전했다. 다시 한번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해 조기 해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지난해 5월 국제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을 받은 만큼 교역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현행 권고지침을 근거로 수출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반해, 농림부는 OIE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OIE 규정으로는 부족하며 광우병을 일으키는 특정위험물질(SRM)등 부위와 일정나이 이상 소 수입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 협상 권한을 부여받은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담당 수석협상관을 보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등과 고위급 협상을 벌인 바 있으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근거이다.

양국 정치권은 정치일정을 앞두고 찬반이 명확한 FTA 문제와 관련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FTA 국회비준 처리를 통과시키긴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일련의 정치권 행보는 이러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비껴나가고 있는 듯 하다. 경제계를 비롯한 한미FTA 찬성측은 정치권과의 회동을 통해 연일 FTA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비준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FTA 민간대책위원회 5인과 회동에서도 “정치적인 어려움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비준과 동시에 발효가 되어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 사정을 감안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도 28일 개최가 유력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

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상정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도 FTA 찬성론자로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등 FTA 국회비준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75명의 국회의원이 국정조사권을 상정해 놓고 있다. FTA 비준안이 임시국회에 올라오면 국정조사권을 맞물려 발동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착수를 위한 구성, 기간, 방식, 위원회 등이 구체적 일정이 합의를 통해 나오게 되나 이는 원내대표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정조사권이 발동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만약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자동적으로 비준안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모두 소화한 후 다시금 상정되게 되므로 차기 국회일정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라는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일정으로 비준안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시기적인 문제로 언제나 국회 진입을 목도에 두고 있는 것이 한미FTA 비준안이다.

미국측 입장은 어떠할까? 민주당 경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미국의 대선판은 일단 FTA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정부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던 FTA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으며, 노동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선부른 판단이 대

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그것이다. 민주당의 힐러리, 오바마 후보가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칫 FTA의 성과가 부시정부의 업적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자동차,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면 이 역시 낙담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한미FTA에 영향을 미칠 양국 주요 정치 일정

2008년

- 2월 한국, 임시국회
-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
- 8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 9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2009년

- 1월 미국, 새통령 취임